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OECD AGLINK-COSIMO과 PEM모형 의제 검토회의
- 출장 목적:
 - 가. 세계 농산물 수급모형인 OECD AGLINK-COSIMO와 PEM모형은 매년 5월에 전망치가 발표되기 전 관련 국제연구진이 모여 baseline 전망치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짐.
 - 나. 출장목적은 OECD baseline에 대한 토론, PEM 모형에 대한 토론, 한국판 세계농업모형 연구에 대한 의견 조율, 세계농업수급 분석전문가들과의 network 구축 등임.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기관:
 - OECD Conference Centre, 2 rue André Pascal, 75016 Paris, France
- 출장 기간: 2010년 5월 16일(일)~23일(일) 6박 8일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미래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한석호

II. 출장 내용

- 출장 일정

17 May 2010	
Item 1. 10:00-10:10	Adoption of the agenda of the 51st session
Item 2. 10:10-10:20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50th session
Item 3. 10:00-12:00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2018
Item 4. 12:00-13:00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t a glance
Item 5.	Proposal for the 2011 report Agricultural policies in

17:00-18:00	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es
18 May 2010	
Item 6. 9:30-10:30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United States
Item 7. 11:00-12:00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urkey: Progress report
Item 8. 12:00-13:00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European Union
Item 9. 14:30-18:00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19 May 2010	
Item 10. 10:45-13:00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Item 11. 14:30-16:00	Agricultural Policy Reform –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EM Long term trends in policy performance
Item 12. 16:30-17:00	Report of the fifth meeting of the OECD Network for Farm Level Analysis
Item 13. 17:00-18:00	Factors determining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e -- The rol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20 May 2010	
Item 14 9:30-10:30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em 15 11:00-11:30	Agricultural policy design in developing countries: Progress report
Item 16 11:30-12:30	Update on communication
21 May 2010	
13:30-15:30	Irish FAPRI 연구원과 미팅
16:00-18:00	U.S. FAPRI 연구원과 미팅

III. 주요출장 결과 (제51차 농정시장작업반 회의 결과)

- 이번 농업정책작업반 회의에서는 OECD-FAO 농업전망(2009-2018), 2010 회원국 농업정책 모니터 및 평가, 회원국과 신흥국 농정에 관한 2011 보고서 제안, 미국, EU, 터키의 농정개혁 평가, 농업상품시장의 구조적 변화, 농가위험관리, 정책평가모형(PEM, Policy Evaluation Model) 관련보고,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OECD 5차 네트워크 보고, 농업혁신과 경쟁력, 농업과 개발, 개도국 농정 설계 등 13개 의제가 논의되었음.
- 특히 2008년 세계 농산물가격의 상승 및 급격한 변동을 바탕으로 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를 야기하는 원인과 영향의 정도, 가격변동이 계층별로 후생에 미치는 영향, 가격급변에 대한 개도국들의 정책 대안의 효과분석 등 8건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음
- 각 국은 2010 회원국 농정평가(At a glance)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연구보고서에 대한 토론 시 유럽과 미국의 직접지불금 정책차이에 기인한 시각 차가 여전히 존재함.
- 한국 대표단은 한국농정평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제기하였으며 사무국은 이를 수용한 문안을 제시함
- 2008년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문제와 관련한 외부전문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입국가 간 의견이 충돌함
- 특히 투기자본(선물시장)이 농산물 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국제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신흥 경제국의 정책대응, 미래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한 신흥경제국 정책대안 등 회원국간 입장이 상이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책임하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
- 농장 및 농업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적절한 규범을 설정하되 해외 투자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됨
- OECD 사무국이 신규 개발중인 정책평가지표(유사관세상당치 등)에 대해

서는 지표개발의 실효성 등에 대해 많은 국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임

3. 관찰 및 평가

- 금번회의 논의 주제 중 “각국의 위험관리 정책” 및 “외국 민간자본의 개도국 농지에 대한 투자”, “R&D의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관련 연구는 관련 국내 정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관심이 필요함
- 특히 냉해피해,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농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농업보험제도, 호주, 뉴질랜드의 차단방역정책은 정책수립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개도국에 대한 해외농업투자 원칙 수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FAO, WFP 등 식량기구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OECD 투자위원회에서 작성중인 “책임있는 농업투자” 보고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6.1-6.2. 개최예정인 농업위원회에서는 차기 작업과제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인바, 사무국의 제안 검토와 우리의 관심사항이 반영된 추가 작업과제에 대해 사전 준비작업이 면밀히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녹색성장과 농업보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입장을 정리하여 회의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세부논의내용

(1) OECD-FAO 2010-2019 농업전망

- 보고서 내용
- 미국, 독일 등은 2세대 바이오에너지가 2016년부터 상용화된다는 기본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전망분석의 기초 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

-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OECD에서 사용하는 기본가정(거시경제, 관세율, 정부정책 등)을 바탕으로 세계농업의 추세를 하였고 때문에 분석상 한계가 있음을 명시한다는 전제하에 동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

- 회원국은 보고서 공개에 동의

《OECD-FAO 농업전망》

- o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2009년 후반부터 점차 **경기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며, 에너지 시장의 상황은 향후 10년간 원유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9년에는 USD 97/barrel 까지 상승
 - 농산물 시장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식물성 기름, 설탕 시장)에 대한 바이오연료 시장의 영향은 향후에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나, 2016년경에 lignocellulosic biomass를 이용한 제 2 세대 바이오연료가 도입될 것으로 보아 2016년경부터는 대체로 농산물 시장에 대한 바이오연료시장의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o 농업성장은 2050년까지의 장기 필요수준인 세계식량생산의 70% 증가전망
 - 라틴 아메리카의 개도국들의 생산증대가능성을 강조 2007-09년에 비해 2019년까지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가 각각 40%, 26%, 29%, 26%, 21% 씩 생산수준이 증대
 - 호주, 미국, EU의 생산수준은 각각 17%, 10-15%, 최대 4% 씩 증가
- o 향후 10년간의 명목 및 실질 곡물 가격은 2007/08 농산물 가격의 급등 전의 1997-2006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o 쌀 사용량은 2019년 522 Mt로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연평균 1.1%를 유지
 - 대한민국, 일본, 중국은 쌀소비가 감소되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비안 지역에서 밀가격상승으로 쌀의 주식화 추세에 따른 것
 - 2009년의 저조한 작황으로 2010년 쌀 재고량 감소로 국제 쌀 가격은 2010년에 평균 USD 570 per tonne으로 상승전망되나, 2019년 세계 쌀 재고량은 117 Mt으로 2009년의 100 Mt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 쌀 가격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USD 422 per tonne에 이를 것으로 전망(2007년의 USD 335 per tonne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 쌀 무역증가율은 지난 10년보다 낮은 매년 2.1%에 그쳐, 2019년에는 38 Mt정도에 그칠 전망(세계생산량의 7%정도)
- o 세계 육류소비는 기금류 28% pa, 돼지고기 23% pa, 쇠고기 20% pa로 빠른 속도로 증가
 - 대부분의 증가는 개도국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반면에 육류공급의 증가는 사료 가격의 상승과 자연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1.9% p.a.에 그칠 것이며, 대부분 OECD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2019년에 브라질 수출이 전세계육류수출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브라질과 함께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호주가 세계육류시장의 공급을 주로 담당할 전망.

(2) 2009년도 OECD 회원국 농정 평가

○ 보고서 내용

※ EU의 축산물 및 한국 쇠고기 MPS 측정방법의 변화가 현장에서 문서로 소개됨

- 한국의 쇠고기는 2001년 자료부터 수입관세방법으로 측정되면서 PSE 수치가 상당히 개선됨

○ 요약본 및 제1장(농업지지와 정책발전) 중 각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를 한 가지씩 기술한 부분에 대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EU 등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등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평가내용중 불만사항에 대하여 문장 수정 내지 보완을 요청

- 미국은 OECD 농업각료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농업과 기후변화 협상 정리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EU는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

○ 한국은 한국의 농업정책 개혁노력이 제3장 국가별 농정개요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요청문안을 서면으로 제출함

- * 서면제출내용 : 한국은 농업보조금 시장지향적으로 개선기로 이해관계인과 합의하였으며 맞춤형 비료 공급등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도입중

○ 사무국은 이견이 많았던 단락의 삭제 등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회의 마지막 날 수정보고서를 배포하였으며 회원국은 이에 대해 공개를 승인함

- * 사무국은 한국 서면의견을 반영한 수정문안을 제시함

(3) 2011년 농정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제안

- 사무국은 지난 50차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OECD의 분석 범위 확대 및 'OECD 회원국의 농정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와 '신흥국 농업정책' 보고서를 통합 작성하는 방안과 관련 사무국 구상을 제안.

- 평가대상 국가별 범위
 - 2011년은 OECD회원국과 EU,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
 - 2012년은 OECD 회원국과 EU
- 2012년도는 책자 발간 : 'At a Glance' version 발간 예정
- 보고서 공개 : 2011년 5월 APM 회의에서 논의후 7월 공개
- 비회원국 자료확보 : 금년 7월까지 비회원국들에 대한 관련 데이터 확보

- 노르웨이는 국가별 분석시 균형된 시각 유지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프랑스는 비OECD 국가 선정시 인도, 인도네시아 포함을 요구
- 사무국은 인도의 경우 PSE자료가 없어 대상국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회원국은 사무국의 제안대로 추진기로 결정

(4) 미국의 농정개혁 평가

- 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의 발언내용을 반영하여 사무국에서 미국 농정 개혁평가 수정안을 제안함. 동 보고서는 2008년에 개정된 미국 농업법을 위주로 하되, 1985년 농업법 이후의 미국의 농정개혁의 성과를 다룸.
- 미국은 사무국 보고서 내용 중 식량원조, 원산지표시, 평균작물수입 선택제도(ACRE), 면화, 바이오연료 등에 대한 서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동보고서 공개를 11월 작업반회의시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
- EU는 미국의 농촌개발정책이 유럽의 농촌개발정책과 차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설탕, 낙농, 에너지 정책 분석내용에 이견이 있다고 언급. 특히 2008 신농업법 성격 규명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
-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의 원산지표시제(COOL) 도입 목적에 의문을 제기
- 사무국은 6월까지 미국 등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아 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작업반회의에서 공개를 추진기로 함

(5) 터키 농정개혁 평가

- 사무국은 2001년 농업개혁이행계획(ARIP)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정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근의 정책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 목차를 제안
- 회원국들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

(6) EU 농정개혁 평가

- 사무국은 EU농정개혁 평가보고서에 수록될 내용중 EU 농업현황 및 농정개혁의 역사에 관한 1,2장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앞으로 모델을 이용한 시나리오분석과 농정개혁평가 및 권고내용을 작업할 것임을 설명
- 네덜란드는 직접지불의 비연계수준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책분석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민감도 분석을 추가할 것을 요구.
- 미국은 공동농업정책이 농촌개발관련 지불의 일부분이 PSE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농촌개발 관련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이 WTO원칙에 비추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사무국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 보고서에 반영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하반기 작업반에서 보고서 공개를 추진키로 함

(7) 농산물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

* 2008년 국제농산물가격 급등과 관련 이슈들을 외부전문가를 통해 분석

① 투기자본과 금융펀드의 활동

- 외부전문가가 선물시장 인덱스 펀드가 농산물 가격상승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분석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 스웨덴,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일부국가는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 불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 결론을 지지

- 일본은 index 펀드 거래약정기간 문제 등 분석대상과 연구방법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EU는 선물시장 거래펀드중 인덱스 펀드와 스왑 거래만을 분석하여 연구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
- 사무국은 회원국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작성하되 **OECD 사무국장 책임하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함**
- * 사무국은 회원국간 첨예하게 이견이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회원국의 발언을 감안하되 사무국장 책임하에 공개하는 차선책을 선택

② 식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전환

-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간 농식품 시스템의 변화, 특히 식품 공급 체인의 주요 부문인 가공과 소매 부문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기술
- 프랑스는 소매부분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요청
 - 독일은 증거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소매부분의 집중화와 거대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
- 브라질은 결론을 지지하지만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s)에 대한 연구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사무국은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s)대한 연구는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동 보고서의 주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사례찾기가 어려움을 언급하고 회원국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③ 토지시장의 발전 (해외 농장투자)

☐ 보고서 내용

《농장과 농업 인프라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 HighQuest 보고서》

- 민간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새로운 농업자산 투자는 인플레이션 헤징, 낮은 타 자산 연계성, 식량안보 등으로 전망이 밝음

- 국제조직이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지 및 농업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모든 투자자들이 요구함

《개도국 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 FAO》

- 외국인 투자가 기술이전, 고용창출, 관련 산업 발전 등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이 아니라, Win-Win 전략을 구사해야 함.
- 특히 투자유치국가의 국내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음.
- FAO, UNCTAD, World Bank, IFAD 등이 책임있는 국제 투자 원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작업에 관심을 두게 되고, 많은 회의(2009년 9월 UN총회, 2009년 12월 OECD의 외국인투자 포럼 등)를 통해 7가지 원칙을 마련함.

- * OECD 투자위원회는 OECD에서 개발한 투자 규범(OECD-based investment instruments)에서 “책임있는 농업투자”를 위한 관련 규범을 소개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PFI), Guidelin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OECD Risk Awareness Tool for MNEs in Weak Governance Zones 등에서 ‘투자국 및 유치국의 정부와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적합한 행동’, ‘국제적 개념과 원칙에 대한 혁신’,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실행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논의내용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외국인 투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식량안보나 농민 및 정부입장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함을 강조.
- 또한 외국인 농업투자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EU는 투자해당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투자자와 해당정부(지역)간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

- 프랑스는 현재 외국농업에 투자하는 국가의 투자사유, 투자대상국, 자산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입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누구를 위한 행동강령 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미국은 FAO가 제시하는 투자원칙으로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code' 용어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voluntary)인 투자 촉진과는 상호 모순됨을 언급
 - 해외농업투자원칙이 마련되더라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표명
- 사무국은 FAO보고서는 OECD 요청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 수정권한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외부 전문가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아 수정 보고서를 작성기로 함

④ 농산물 가격변동이 개도국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는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이 개도국의 농촌지역 주민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의 농산물가격 전망이 이들 나라에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분석
- 캐나다는 농산물 가격의 계절별 변동성이 고려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독일은 분석된 9개국가 외에 중국, 인도에 대한 추가 분석과 연구에 활용한 국가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함
 - 프랑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가격전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사무국은 캐나다가 언급한 농산물 가격의 계절적 변동성 반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모델링의 한계로 고려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기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기로 함

⑤ 국제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신흥경제국의 정책 대응

- 외부전문가 보고서는 최근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한 주요 신흥경제국의 단기적 정책대응을 분류하고 국내시장과 무역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
 - 각국의 단기 정책들은 크게 식품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일반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소비자 및 생산자 보조 정책 등 4가지로 분류.

- EU는 Aglink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프랑스는 재정적 비용 외에 사회적 비용, 정부정책 등 다른 요인도 검토해야 함을 지적함
- 일본은 각국이 다른 정책반응을 한 이유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독일은 가격전이, 국제 식량재고량의 영향등을 추가 연구할 것을 요청함
- 사무국은 동 보고서의 민감성과 회원국들간 입장차이를 감안 **사무총장 책임하에** 보고서를 공개키로 함

⑥ 미래의 상품가격상승에 대한 신흥경제국의 정책대안

- 보고서는 2007/08년의 상황과 비슷한 농산물 가격급등현상이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였을 경우, 주요 신흥경제국들에서의 특정 대응정책들이 시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개도국의 정책조치로서 국경조치(border measure), 소비자 보조(consumer subsidy), 그리고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과 같은 세 가지 정책대응들의 시장과 납세자에 대한 국내적 영향과 아울러 다른 신흥경제국들을 포함한 국제시장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됨
- 일본은 국제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별 단기효과 분석을 요구하고 국가별 대응보다는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함.
- 프랑스는 대상국가 선정시 북아프리카가 제외되었음을 지적하고 3가지 조치에 대한 개별적 분석보다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
- 미국은 보고서에 분석방법의 한계를 적시할것과 비축정책의 시장에 대한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사무국은 사무총장 명의로 보고서를 공개키로 하고 향후과제로서 국가간 정책대응의 관계를 다룰 계획을 발표함

(8) 농업에서의 위험관리

① 농가단위 분석과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

- 보고서는 개별 농가가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7개국(호주, 스페인,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의 농가단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특히, 영국과 호주 대상으로 확률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하여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이 농가소득 분포, 농가 후생 및 영농 위험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함.
- 한국은 농가의 영농형태, 경영규모, 경영자의 능력 등 각 농가유형에 맞는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프랑스는 농가 생산다각화 지표 선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캐나다는 소득 이외에도 효율성을 후생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회원국은 공개를 승인함.

② 각국의 위험관리 사례

- 사무국은 농업 위험관리의 사례로서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3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문헌조사, 방문조사등을 거쳐 각국의 위험관리 전략과 정부정책 등을 제시함
 - 상세내용 첨부참조
 - * 캐나다, 네덜란드 사례는 11월 작업반 회의시보고 예정
- 호주 사례 : 호주는 연구의 초점을 정책제안 파트 부분 둘 것을 주문하였으며, 프랑스는 호주의 가뭄대책이 중요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호주의 경우 토양습도 유지가 중요하며 향후 가뭄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언급함
- 뉴질랜드 위험관리 : 뉴질랜드는 연구 방향을 다른국가와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캐나다는 농가소득 측정이 제대로 된 것이지 의문을 제기

- 사무국은 농가소득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 등 보완을 추진기로 함
- 스페인 위험관리 : 스페인은 자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하고, 프랑스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사무국은 추가적인 자료 확보 등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을 추진기로 함

③ 외생적 위험과 가격 변동성의 총계모형 분석

- 사무국은 농식품 가격변화는 농식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충격과 조정의 다른 요인과 관련되어 있어, 가격변동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부분 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연별 가격변동성의 원인을 수량적으로 제시하고자 연구제안서 제시
- 한국은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성 분석은 거시경제변수를 외생변수로 사용하는 현재의 부분균형모형인 Aglink 모형으로는 분석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OECD가 제시한 분석방법론 중 확률적 예측방법 역시 통계적 해석측면에서 완벽하지 못함을 지적함.
- 독일과 미국은 가격단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프랑스는 AGLINK의 동적모형에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사무국은 Aglink의 가격단위는 연간단위이나, 사전분석 등에서는 월별단위가 활용될 것이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기로 함.
 - 또한 한국에서 제기한 부분균형모형의 한계를 각주 등을 통해 명시할 것을 언급

(9)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 OECD는 정책 효율성 평가를 위해 PSE 이외 명목지원계수(NAC), 명목보호계수(NPC)를 개발하였으나, 생산, 무역, 농가소득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번에 새로이 OECD의 관세 상당치 접근법(tariff-equivalent approach)을 제안함.

- 기존 OECD 지표들과 비교 하였을 때 정부정책효과의 측정방법을 보다 개선했음을 언급
- 회원국들은 새로 개발된 3개의 지표가 기존 지표와 차별성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한국은 새로 개발된 지표들도 PSE방법과 같이 국제가격과 환율 등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PEM모형의 가정(국제거래상품의 동질성)은 최근 원산지표시제 등으로 소비자가 이질적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모형설정에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함.
- 미국, 캐나다는 오직 EU, 스위스의 평가결과만이 긍정적으로 도출되는 등 신지표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
- 아르헨티나는 동 지표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
- 사무국에서는 신지표의 경우 국가간 비교가 보다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모델이 갖는 한계도 있음을 강조하고 보고서 내용을 쉽게 서술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지표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언급
 - 또한 동 지표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회원국의 자료제공 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국 농정평가시 한국정부와 농경연이 보여준 협력을 좋은 사례로 언급

(10)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5차회의 결과

- 사무국은 5차회의에서 캐나다, 이태리, 프랑스, 독일등 14개국에서 24명이 참석하여 캐나다와 투스카니 지방의 농가지원 분포에 관한 연구 결과와 생산성 향상에 관한 네트워크의 기여방안 등을 논의하였음을 구두보고 함
- 사무국은 동 네트워크와 APM의 합동세미나를 제안하고 농가단위 네트워크 6차회의가 파리에서 9.9-10 개최예정임을 설명

(11) 농업에서 혁신 및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① 농식품산업에서 경쟁력, 생산성, 효율성 (정의, 측정 등)에 대한 문헌조사 보고서

- 한국은 공적 R&D투자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요인임을 강조한 본 보고서에서 자본이 무역 경쟁력의 비교열위요인이라는 연구논문(Peterson & Valluru(2000)) 삭제 요구.
 - 단락 142 “제조분야는 너무 이질적이어서 공적투자가 성공적이기 어려움”의 내용을 “가공, 식품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는 공공성, 확산가능성을 고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으로 바꿀 것을 제안.
 - 현장전문가 수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의 이유를 데이터 부정확으로 들고 있는 Hall & Scobie(2006)의 삭제 요구.
- 미국은 경쟁력 개념에 대한 전문가 인용내용이 너무 길고 경쟁력지표에 대한 상세한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
 - 프랑스는 농업생산과 농식품 가공의 경쟁력 지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연계성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표를 추가할 것을 요구
- 일본은 소비자 선호가 국가마다 다르고 경쟁력 총합지표 작성은 변수의 가중치 설정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사무국은 한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장을 삭제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외부전문가에게 전달하고 향후 연구작업시 반영하겠다고 언급

② 농업에서 R&D, 혁신 그리고 생산성으로부터 혜택

- 농업부문에서 연구기술 개발과 생산성 증가의 상호관계를 규명한 문헌 연구로서 이 분야에서의 개념 정리와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함.
- EU는 국가별 비교분석등 심층연구가 부족하고 정책적 평가가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프랑스는 일부 결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
- 일본은 BCR 계산시 주별 이자율이 상이한 점, 품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아 외부전문가에게 전달할 예정임을

설명

(12)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베트남과 이디오피아 사례)

- 본 보고서는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에 농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한 사례보고임. 베트남과 이디오피아의 경제성장, 무역, 농지제도, 유통개혁 등 농정변화와 바람직한 농정방향 등을 제시
- 베트남 보고서에 대하여 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미국등이 관심을 보임
 - 서론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과 정치적, 사회적특성에 관한 충분한 기술필요
 - '도이모이'개혁의 긍정적 영향 및 농업과 비농업분야간의 관계등을 추가 분석요구
- 이디오피아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국들인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도네시아와 가나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작업반에 제출할 계획을 설명

(13) 기타

- 개도국 농정설계
 - 말라리, 가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을 대상으로 한 농정설계보고서가 11월 작업반에서 제출될 예정
- OECD 지역세미나
 - 1.19-20(미국), 5.10-11(폴란드), 5.11-12(일본, 농업전망전문가 대상) 지역세미나 결과를 소개
 - 9월(독일, 농경제 및 사회학자대상) 및 11월(장소미정, 위험관리주제) 지역세미나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
- 개편된 '대표단 코너' 소개 및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고, '농업용수의 지속가능한 관리(한국, 일본등 10개국)'에 대한 책자발간 소개

(14)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녹색성장과 농업보조금)

- 사무국은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내용중 농업보조금과 녹색성장 관계를 소개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소개하고 내년 전략부분을 포함한 통합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나 보고서 구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농업 등 분야별 작업보다는 총괄적인 보고서가 될 것임을 언급
-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농업보조금내용이 녹색성장의 장애요인 파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보다 중립적인 내용이 되도록 6월 농업위원회에서 동 내용을 논의하기를 희망
- 사무국은 회원국의 우려사항을 녹색성장 보고서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나 동 보고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이사회에 보고되는 모든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언급